

4월 12일

## 영생을 나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었  
그의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9-11).

: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둬낼 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나타납니다. 복사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던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죄에 대해 도덕적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에 의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sup>행 1:8</sup>. 권능이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로서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부여하는 어떤 힘도 아니며 성령 자체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은 우리가 주님과 일치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길 원하노라”<sup>엡 3:19</sup>. 영생은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셨던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능력이라도 주장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영생을 나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아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롬 6:9-11)

### 영생을 나눔

영생은 무엇일까요? 3일간 계속 나오는 ‘도덕적 결단’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도덕적 결단이 ‘죄’로부터 완전히 죽는 실제적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죄에 대하여 죽으면 우리에게도 주님께 나타났던 능력과 권능이 임합니다. **도덕적 결단은 우리의 의의이지만 이러한 능력과 권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우리의 도덕적 결단이 없으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도덕적 결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영생’은 ‘시간’과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셨던, 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한 영원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원한 시간은 불안합니다. 영생은 죽음 후의 무한한 세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이란 또한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생이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육신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육신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덕적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역시, 챔버스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장하는 ‘순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순종은 ‘전적인 위임’ 즉,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양도’(Yield)하는 것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보다 ‘순종’을 잘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묵상 글에서는 챔버스가 ‘let go’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이 하시도록’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그 분이 행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챔버스는 “We have to keep letting go”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양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천천히 충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양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착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즐기던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내려놓으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의 능력을 주장하면 주님의 생명이 가려집니다.

**묵상 질문** 부활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도록,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 묵상레시피 ■ 열왕기하 5:1-14 + 로마서 6:9-11

나아만의 지위와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1, 5, 9절, 용어설명 참고)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심각했습니까? (1, 7-8절)

치유를 바라는 나아만의 간절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4-5절)

엘리사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나아만의 분노와 신하의 조언을 묵상해 보십시오. (11-13절)

나아만은 무엇을 행했고, 어떤 결과를 보았습니까? (14절)

내가 반복적으로 분노하며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양도해야 할 표면적, 내면적 영역은 무엇입니까?

#### 크고 존귀한 자니, 여주인(1절, 3절)

‘존귀한 자’는 얼굴이 들려진 자라는 의미가 있다. 즉,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의 아내에게 사용된 ‘여주인’(히, 그비라)은 귀부인이나 왕비, 대비 등을 지칭하는 단어다(왕상 11:19, 15:13, 왕하 10:13). 나아만과 부인의 신분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자였다. 왕은 그를 ‘구하려’ 했다. 심각한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예우를 받을 만큼 존재감 있던 사람이었다.

#### 부위 위에 흔들어 (11절)

‘흔들어’(히, 헤니프)는 ‘올리다’라는 뜻이 있으며 ‘올려 드리는 제사’로 볼 수 있다. ‘부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함마콥) ‘성소’, ‘그 장소’라고 번역할 수 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지위에 걸 맞는 ‘치유의식’, 종교행사를 거행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병 낫기에 관심이 있었다.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14절)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의식을 상기시킨다. ‘잠그다(히, 타발)’라는 용어는 제사, 정결 의식에서 쓰이는 용어다.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자의 ‘치유’ 절차라기보다, ‘완쾌 후’의 절차이다. ‘깨끗하다’는 것은 단지 피부가 온전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를 갖는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치유만을 위해 요단강에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신앙을 위한 과정으로 인도한 것이다.